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공감과 학교적응의 순차적 매개효과

이선희* · 이은경**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중학생의 공감과 학교적응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PSKC) 14차년도(2021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학생과 어머니의 응답이 모두 포함된 1,295쌍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SPSS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후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공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공감과 학교적응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학교적응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감은 학교적응과의 관련성 속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공감, 학교적응, 진로성숙도

논문 투고일 : 2026. 07. 31.

최종심사일 : 2026. 09. 22.

게재확정일 : 2026. 09. 23.

* 숭실사이버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부교수

**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심리상담학 전공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Eun Gyoung Lee, Dept. of Psychological Counseling,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1375, Gyeongdong-ro, Andong-si, Gyeongsangbuk-do, Korea 36729, Korea. E-mail: ethan@gknu.ac.kr

I. 서론

현대사회는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직업세계의 다양화로 인해 미래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3)의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약 41%가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주된 이유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를 꼽았다. 이는 상당수의 중학생이 자신의 특성과 흥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로를 탐색하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진로성숙도는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독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결정할 수 있는 준비 정도를 의미한다(이경상·조혜영·박현수, 2004).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발달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된 진로성숙도는 이후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발달적 특성이다(조효진·이은설·손보영, 2020). 특히 중학교 1학년은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다(Santrock, 2022). 따라서 진로발달의 출발선에 서 있는 중학교 1학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공적인 진로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중요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진로발달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지·정서적 특성과 환경적 맥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특히 청소년의 진로발달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경험 및 상호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 및 학교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진로성숙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정문숙·조규판, 2023; 정주원·김은정·최진희, 2024)과 같은 개인·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 부

모-자녀관계, 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학교적응(성영순·김재철, 2022; 전해영·박재국, 2020; 황슬기, 2017)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진로성숙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 가운데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상적인 발달환경을 구성하는 부모의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부모는 청소년의 가치관과 진로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주체이며, 그중에서도 어머니는 자녀와 가장 많은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양육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중 주관적 행복감은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심리적 특성으로 주목받고 있다(최효식, 2021).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평가하고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심리적 특성으로(Lyubomirsky & Lepper, 1999),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 보다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최은주·김춘경, 2018). 이러한 긍정적인 양육환경은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과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최효식, 2021), 나아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행복감이 자녀의 심리적 발달 및 적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Cheung et al., 2026), 어머니의 행복감이 자녀의 발달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심리적·사회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는 자녀의 진로성숙도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지지, 부모의 교육참여(신현욱, 2025; 이은경·김재승, 2025)와 같은 부모의 행동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부모 자신의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인 주관적 행복감과 자녀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부모의 행동적 특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기존의 진로발달 연구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유준상·서우석, 2013). 진로성숙도는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발달적 과정이라는 점에서(이경상·조혜영·박현수, 2004), 자기이해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개인의 특성 역시 진로성숙도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감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중요한 개인 내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중학생의 진로발달과 관련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Hoffman, 1996),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청소년기는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가 확대되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감은 자기이해, 자아정체감 형성, 그리고 긍정적인 대인관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심혜진·김소연, 2020; Rageliene, 2016). 또한, 자기이해와 자아정체감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인 내적 자원으로 제시되고 있다(Savickas, 2013). 공감과 진로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공감은 진로동기, 진로적응성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정·양희모·이경주, 2019; 임윤서·안윤정, 2018).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진로발달 초기 단계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학생의 공감이 진로성숙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경험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성영순·김재철, 2022). 학교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업뿐 아니라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축적하는 중요한 생활환경이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되는 시기로 새로운 교육환경과 학업방식,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 적응해야 하는 발달적 전환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교적응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뿐 아니라 진로발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교적응은 학생이 학교의 규범과 요구를 수용하고 학업,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및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민병수, 1991).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학생은 다양한 학습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할 기회를 보다 많이 경험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학교적응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밀접하게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주연, 2023; 이지원·정혜원, 2024). 즉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준비 수준이 높고, 진로탐색 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윤주·조항·김신애, 2023). 이는 학교적응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학교에서의 적응 경험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가정의 심리적 특성은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및 학교생활 경험과도 관련될 수 있다. 행복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보다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Bang & Jang, 2022), 이러한 양육환경은 자녀의 정서발달과 사회적 관계 형성

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isenberg et al., 2013). 비록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녀의 공감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중학생 자녀의 공감 발달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중학생의 학교적응과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경(2023)은 한국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전반적 행복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머니의 긍정적인 심리상태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가정환경 요인임을 밝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자녀의 공감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감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개인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공감의 역할을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기에, 두 변인 사이에서 공감을 통한 간접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촉진하고(김영경, 2023), 학교적응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성영순·김재철, 2022). 따라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을 통한 간접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학생의 공감과 학교적응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감은 타인의 정서와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학교생활에서 요구되는 대인관계 및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다(최나래·신나나, 2014). 이러한 특성은 또래 및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경험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적응에 선행하는 개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공감능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또래 및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높은 수준의 학교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나래·신나나, 2014).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가족의 심리적 특성으로서 중학생의 공감 및 학교적응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감은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으로서 학교적응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교적응은 진로성숙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학교환경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개인의 특성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가족의 심리적 특성,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및 학교환경에서의 적응 경험이 서로 연결되는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중학생의 공감 및 학교적응과 관련되고, 이러한 학교적응이 다시 진로성숙도와 관련되는 순차적 간접경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기존 선행

연구들 중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중학생의 공감과 학교적응,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공감과 학교적응이 어떠한 간접경로를 형성하는지를 함께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공감과 학교적응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가족, 개인 및 학교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초기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공감과 학교적응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한국아동패널연구(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의 14차년도(2021년) 중학교 1학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PSKC 14차년도의 패널 표본 데이터 1,328명 중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중학생의 공감, 학교적응 및 진로성숙도에 결측이 있는 사례를 listwise deletion 방식으로 제외한 후, 연구변수에 모두 응답한 어머니와 중학생 1,295쌍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 659명(50.9%), 여학생 635명(49.0%), 무응

답 1명(0.1%)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평균연령은 44세($SD=3.6$)였으며, 40대가 1,077명(83.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0대(114명, 8.8%), 50대(96명, 7.4%), 20대(1명, 0.1%) 순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7명(0.5%)이었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확정한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전반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등이 있으며, 각각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1점)’에서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7점)’까지, ‘매우 행복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행복하다(7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2) 공감

본 연구에서는 홍예영과 김유숙(2015)이 개발한 청소년 공감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에서 신뢰도가 낮은 2개 문항을 제외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의 세 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하위영역별 효과가 아닌 전반적인 공감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세 하위영역의 문항을 모두 포함한 전체 15문항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간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차린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6점)’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3) 학교적응

중학생의 학교적응은 이규미(2005)가 개발한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교적응 척도는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전체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네 하위영역의 문항을 종합하여 전체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학교 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4) 진로성숙도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이경상, 조혜영, 박현수(2004)이 개발하여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I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2.0(IBM Co., Armonk, NY)과 SPSS PROCESS macro(Hayes, 2017)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예비분석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연구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위해 문항 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의 값을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다음

으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 관계에서 공감과 학교적응이 순차적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사용하여 순차적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추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5,000개로 지정하고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비표준화 회귀계수(B)로 보고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한 결과, 연구 변인들의 왜도는 $-.63 \sim .05$, 첨도는 $-.53 \sim 1.93$ 의 범위로 나타나 왜도의 절대값이 3이하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이하라는 정규성 가정의 기준(Kline, 2016)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중학생의 공감, 학교적응 및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연구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r = .06 \sim .58$) 나타났다(<표 1>).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은 중학생의 공감, 학교적응 및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의 공감 수준이 높은 것은 학교적응 및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으며,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 역시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다만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공감, 학교적응 및 진로성숙도 간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공감	학교적응	진로성숙도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1			
공감	.06*	1		
학교적응	.11**	.58**	1	
진로성숙도	.08**	.10**	.25**	1
평균	5.11	5.05	3.86	2.94
표준편차	.94	.69	.51	.54
왜도	-.03	-.63	-.14	.05
첨도	-.53	1.93	.14	-.14

* $p < .05$. ** $p < .01$.

2.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공감과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공감과 학교적응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을 실시하였다. 먼저,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에서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Tolerance)는 .677, VIF는 1.47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을 독립변인으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중학생의 공감을 제1 매개변인으로, 학교적응을 제2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순차적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 [그림 1],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47$,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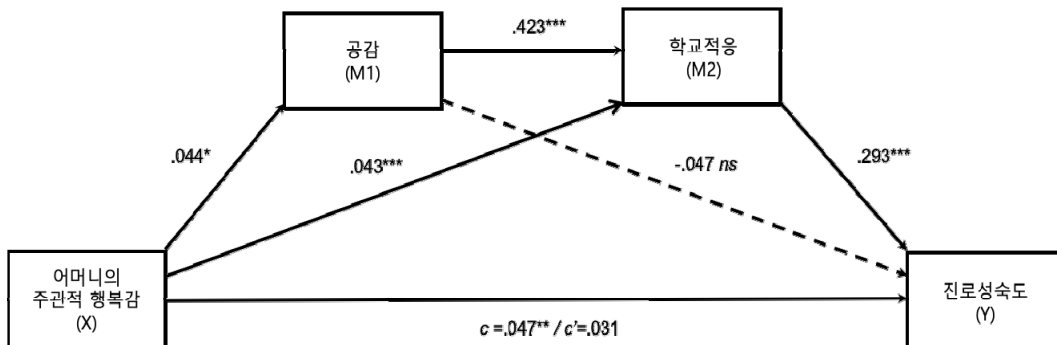
다음으로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각 경로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중학생의 공감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B=.044$, $p<.05$), 공감은 진로성숙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B=-.047$, $p>.05$).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공감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는 $B=-.002$ 였으며, 95% 신뢰구간 $[-.006, .001]$ 에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 진로성숙도 간 관계에서 공감과 학교적응의 순차적 매개효과
($N=1,295$)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t	95% CI		$F(df)$	R^2
						LL	UL		
1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공감	.044	.020	2.143*	.004	.084	4.592* (1, 1293)	.004
2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학교적응	.043	.012	3.467***	.019	.067	332.742*** (2, 1292)	.340
		공감	.423	.017	25.311***	.391	.456		
3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진로성숙도	.031	.016	1.952	-.000	.062	30.313*** (3, 1291)	.066
		공감	-.047	.026	-1.796	-.098	.004		
		학교적응	.293	.035	8.293***	.224	.363		
총효과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진로성숙도	.047	.016	2.895**	.015	.078	8.381** (1, 1293)	.006

* $p < .05$. ** $p < .01$. *** $p < .001$.

이어서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각 경로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B=.043$, $p<.001$), 학교적응은 진로성숙도와도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는($B=.293$, $p<.001$).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학교적응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는 $B=.013$ 이었으며, 95% 신뢰구간[.005, .022]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경로계수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공감과 학교적응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각 경로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중학생의 공감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B=.044, p<.05$), 공감은 학교적응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고($B=.423, p<.001$), 학교적응은 진로성숙도와도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B=.293, p<.001$).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공감과 학교적응의 순차적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는 $B=.005$ 였으며, 95% 신뢰구간[.001, .011]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중학생의 공감과 정적으로 관련되고, 공감은 학교적응과, 학교적응은 진로성숙도와 유의한 관련을 보이며, 공감과 학교적응을 통한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보여준다. 한편, 공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후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공감을 설명하는 모형의 설명력은 $R^2=.004$ 였으며,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진로성숙도 간의 총효과 모형의 설명력은 $R^2=.006$ 으로 나타났다.

<표 3>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 진로성숙도 간 관계에서 공감과 학교적응의 간접효과

(N=1,295)						
효과	경로	B	SE	t	95% CI	
					LL	UL
전체 효과		.047	.016	2.895**	.015	.078
직접 효과		.031	.016	1.952	-.000	.062
간접 효과	전체	.016	.005	—	.008	.026
	X → M1 → Y	-.002	.002	—	-.006	.001
	X → M2 → Y	.013	.004	—	.005	.022
	X → M1 → M2 → Y	.005	.003	—	.001	.011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공감과

학교적응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이 낮았으며, 총효과 모형의 설명력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관계의 유의성과 실질적인 크기는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스스로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어머니의 삶에만 긍정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과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진로발달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하며, 개인의 진로 발달을 개인과 환경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설명하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Lent, 2020; Liang et al., 2020). 따라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는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맥락은 청소년의 진로발달과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새로운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학업량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어머니의 행복감과 관련된 긍정적인 가정 분위기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중학생의 공감과 정적으로 관련되었으나, 공감은 진로성숙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녀의 공감 간에 정적인 관계가 나타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Ma 등(202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긍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녀의 공감 간의 정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중학생의 공감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이 진로성숙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변인이라기 보다, 공감만으로는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공감과 진로성숙도의 단순상관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학교적응을 함께 투입한 매개모형에서는 공감과 진로성숙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공감이 진로성숙도와

독립적으로 관련되기보다 학교적응 등 다른 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로성숙도와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중학생의 학교적응 및 진로성숙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학교적응을 통한 간접적인 관계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특히 학교적응을 통한 간접효과는 본 연구에서 검증한 개별 간접경로 중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역할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자녀의 학교적응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 및 학교적응과 청소년의 진로성숙 및 진로적응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김영경, 2023; 성영순·김재철, 2022; 조운주 등, 2023). 또한 가족의 긍정적인 기능이 학교연결감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적응성을 높인다고 보고한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Xie et al., 2024). 이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단일 특성으로 보기보다,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과 관련되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와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통해 중학교 입학 이후 새로운 환경과 학업부담에 적응해야 하는 자녀의 학교적응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은 학교생활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과도 관련될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의 긍정적인 경험과 교사·교사와의 관계는 자신의 강점과 관심을 발견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지원할 때 전반적인 학교적응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공감과 학교적응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중학생의 공감과 관련되고, 공감은 학교적응과, 학교적응은 다시 진로성숙도와 관련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사회정서적 특성과 학교생활을 거쳐 진로발달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Xie et al., 2024) 및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경험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2020)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공감의 단독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감은 진로성숙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보다 학교적응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감과 진로성숙도의 단순상관은 유의하였으나, 학교적응을 함께 투입한 모형에서는 공감의 직접효과가 부적 방향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러한 변화는 학교적응을 함께 고려할 때 공감의 고유한 설명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공감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방향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공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학교적응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중학생의 공감, 학교적응 및 진로성숙도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인과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큰 표본에서는 작은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순차적 매개효과는 실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변인 간의 통계적 관계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각 변인을 서로 다른 시점에서 측정함으로써 변인 간 관계의 시간적 변화와 방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제3변인에 의한 설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을 통제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간접경로의 타당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던 2021년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적인 학교생활 상황으로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자료를 활용한 반복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성숙도 척도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는 해당 척도의 측정 범위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의 진로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주로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에 초점을 두고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에서 공감과 학교적응을 통한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감이 진로성숙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보다 학교적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로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교적응을 통한 간접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학교 1학년이라는 발달적 전환기에 학교적응이 진로성숙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지원하는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학교적응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학교 입학 초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참여와 교사 및 또래관계, 학교에 대한 소속감 등을 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적 접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감은 학교적응과 관련되는 사회정서적 특성으로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3).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서울: 교육부.
- 김영경(2023). 모의 일-가정 갈등, 모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구조적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6), 90-104.
-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순·김재철(2022).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3), 323-337.
- 신현욱(202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 및 교사지지와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진·김소연(2020). 청소년과 성인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공감과 정서인식 기능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3), 115-138.
- 유준상·서우석(2013). 진로성숙과 심리적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26(3), 165-183.
- 이경상·조혜영·박현수(2004).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 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7(2), 383-398.
- 이윤정·양희모·이경주(2019).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공감역량,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1-14.
- 이은경·김재승(202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2(12), 487-518.
- 이주연(2023). 청소년의 정서문제, 진로정체감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2), 1023-1033.
- 이지원·정혜원(202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6), 609-625.
- 임윤서·안윤정(2018). 대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진로동기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4(3), 241-264.
- 전혜영·박재국(2020). 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잠재성장 모형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 연구와 실천**, 2(1), 63-84.
- 정문숙·조규판(2023).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 및 교사지지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취업진로연구**, 13(2), 25-55.
- 정주원·김은정·최진희(2024).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32(3), 1-13.
- 조윤주·조향·김신애(2023). 중학생의 학교적응 및 자기불일치 유형에 따른 진로적응성,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 **상담심리교육복지**, 10(1), 83-102.
- 조효진·이은설·손보영(2020).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진로자기이해의

- 매개효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1(4), 975-999.
- 최나래·신나나(2014).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4), 91-116.
- 최은주·김춘경(2018). 부모의 문제성 음주에 따른 모 우울, 행복감, 가족기능, 아동문제행동 간의 구조 분석. **아동과 권리**, 22(2), 215-237.
- 최효식(2021).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른 학교 참여 및 아동의 심리적 특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10), 482-490.
- 홍예영·김유숙(2015). 청소년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59-183.
- 황슬기(2017).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 양육태도, 또래관계, 교사에착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g, K. S., & Jang, S. Y. (2022). Influence of parenting role sharing, parenting stress, and happiness on warm parenting behavior in mothers of children aged 6 years: An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seven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8(1), 82-90.
- Cheung, R. Y., Kum, B. H., Li, J. B., & Cheung, S. K. (2026). Happy Parents, Happy Kids? Prospective 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Happiness, Mindful Parenting, and Children's Social-Emotional Competenc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7(5), 60.
- Eisenberg, N., Spinrad, T. L., & Morris, A. S. (2013). Prosocial development. In P. D. Zelazo (Ed.), *The oxford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 Self and Other*(pp. 300-325). Oxford University Press.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2nd ed).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Hoffman, M. L. (1996).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The Annual Report of Educational Psychology in Japan*, 35, 157-162.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Press.
- Lent, R. W. (2020).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3rd ed., pp. 129-163). Wiley.
- Liang, Y., Zhou, N., Dou, K., Cao, H., Li, J. B., Wu, Q., Liang, Y., Lin, Z., & Nie, Y. (2020). Career-related parental behaviors, adolescents'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and career adaptability: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7(2), 208 - 221.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Ma, Y., Chen, X., Nunez, A., Yan, M., Zhang, B., & Zhao, F. (2020). Influences of parenting on adolescents' empathy through the intervening effects of self-integrity and sense of

- cohere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6, 105246.
- Rageliene, T. (2016). Links of adolescents identity development and relationship with peer: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the Canadi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5(2), 97-105.
- Santrock, J. W. (2022). *Adolescence* (18th ed.). McGraw-Hill.
- Savickas, M. L. (2013).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In R. W. Lent & S. D. Brown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nd ed., pp. 147-183). John Wiley & Sons.
- Xie, R., Kang, N., Zheng, C., Cheng, M., & Hu, J. (2024). The impact of family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career adaptability: The mediating roles of core self-evaluation and school connectedness. *Current Psychology*, 43, 24168 - 24176.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ubjective Happiness and Career Maturit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and School Adjustment

Rhee, Sun-Hee* · Lee, Eun G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and school adjus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ubjective happiness and career maturity among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Data were drawn from the 14th wave (2021)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and a total of 1,295 mother - middle school student pair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ROCESS Macro Model 6 in SPS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aternal subjective happiness had a significant total effect on career maturity, whereas its direct effect became non-significant after empathy and school adjustment were included as mediators. Second, the indirect effect through empathy alone was not significant. Third, the indirect effect through school adjustment alone was significant. Fourth,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empathy and school adjustment was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chool adjustment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ubjective happiness and career maturit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y also suggest the need to consider empathy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when understanding this relationship.

Keywords: maternal subjective happiness, empathy, school adjustment, career matur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Soongsil Cyber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ical Counseling, Gyeongbuk National University